

갱거루족 실태분석과 과제

오 호 영*

본 연구에서는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이하 KLIPS)」 19차년도 학술대회용 자료의 가구조사, 개인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20~34세 이하 성인 청년층을 대상으로 갱거루족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갱거루족에 해당하는 청년층은 6,317,494명으로 전체 분석대상의 56.8%에 이른다. 성별로는 남자가 여자에 비해 갱거루족 비율이 다소 높고, 부모가 고소득층일수록 자녀의 교육훈련에 보다 오랜 기간 투자하기 때문에 20대 초반에는 교육훈련생이 많지만, 30대로 넘어가면서 갱거루족 비율이 매우 제한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 갱거루족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다른 요인을 통제한 후에 경제활동지수가 11.8% 낮고, 한국사회에 대한 인식지수 역시 약 9% 정도 낮았다. 사회적지지지수는 갱거루족 여부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청년층 갱거루족은 경제활동이 낮고 한국사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다는 점에서 청년층에 대한 취업기회 확대를 통해 청년층의 자립을 촉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주요용어 : 갱거루족, 가구소득, 취업의 질, 경제활동지수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고학력화, 청년층의 구직난, 부동산가격 폭등 등으로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이삼식 외(2016)에 따르면 25살 이상 미혼 자녀가 부모와 함께 사는 가구의 비중은 1985년 9.1%에서 2010년 26.4%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 중에는 갱거루족뿐 아니라 부모를 봉양하는 청년층도 포함된다. SBS 뉴스(2016)에서 따르면,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성인남녀 1천61명을 대상으로 ‘스스로 갱거루족이라 생각합니까’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56.1%가 ‘그렇다’고 답했는데, 2015년의 37.5%에서 크게 높아졌다. 20대 응답자의 59.3%, 30대 중에서도 43.8%가 자신을 갱거루족으로 인식하였으며, 자신을 갱거루족이라 생각하는 이유로는 ‘경제적으로 부모님의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62%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경제적으로도, 인지적으로도 독립하지 못했기 때문’(19.7%),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야 마음이 편하기 때문’(14.1%) 등의 순이었다. 즉 경제적으로 의존과 더불어 심리적, 정서적으로 독립이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044-415-5326, hyoh@krivet.re.kr

캥거루족은 성인이 된 자녀가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고 부모에게 여전히 의존하는 현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주거를 함께 하면서 용돈을 받는 등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대개 결혼을 못한 독신일 가능성이 높다. 요컨대, 한국에서 캥거루족은 성인이 된 자녀가 여전히 부모에게 의존하는 현상을 의미하며, 정서적, 심리적 의존보다는 경제적, 물질적 의존이 더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대학진학률이 급격히 높아졌으며, 부모의 경제적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학비, 생활비를 부모가 부담하는 것이 보편적 문화로 자리 잡았다. 미국의 경우 대학학비 및 생활비를 장학금, 대출이나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자녀가 스스로 충당하는 것과는 대비되는 것이다. 미국의 부모가 성인자녀의 독립을 당연시하는데 반해, 한국의 경우에는 자녀가 성인이 되더라도 적어도 결혼 전까지는 자녀와 함께 살고 싶어하는 문화적 차이도 있다.

문제는 대학을 졸업한 청년층들에게 취업기회가 제대로 부여되지 않음에 따라 성인 청년층의 부모의존이 20대 중반을 넘어서서 과도하게 장기화됨으로써 부모가 감내할 수 있는 재정적 한도를 넘어서는데 있다. 청년층 취업난은 자녀의 대학교육에 대한 부모의 투자를 무의미하게 만들고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가족전체가 심각한 재정난에 직면하는 위험에 노출된다. 청년층은 취업을 통해 경력단계 초기 숙련형성 기회를 상실하여 장기적으로 노동시장에서 불이익에 직면할 위험이 높아지고 경제적으로도 재산형성의 기회를 놓치는 불이익에 직면한다. 특히,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는 신입직원 채용에서 신규 학졸자를 우대하고 연령을 30세 초반까지로 제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캥거루족이 장기화되면, 비정규직 등 주변부 일자리를 전전하고 정상적으로 사회에 편입되기 힘든 구조적 문제점이 있다. 또한, 자녀의 대학교육에 투자한 부모는 투자금이 회수되지 못함으로써 자신의 노후가 불안해지고 취업에 실패한 자녀의 생활비까지 부담해야 하는 이중고에 직면할 수 있다.

캥거루족 현상은 비단 대학재학생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졸업한 이후의 청년층에서도 나타난다. 첫째로는 공무원시험, 직무적성시험 등과 같이 장시간의 시험준비를 요구하는 채용 제도로 인하여 구직준비에 많은 비용이 수반된다는 점이다. 취업준비 기간에는 특별한 소득이 있을 수 없으므로 부모에 의존하여 안정된 조건에서 취업준비에 전념하는 캥거루족이 아르바이트 등으로 생활비를 벌면서 취업준비를 해야 하는 독립한 청년층보다 절대적으로 유리한 것이 사실이다. 둘째로 취업한 청년층이라 하더라도 높은 주거비를 감당하기는 쉽지 않고, 또한 청년층의 상당수는 비정규직, 인턴 등과 같은 저임금, 고용불안 등에 직면함으로써 경제적 독립이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점이다. 셋째, 서울 등 대도시에서 청년층이 독립하여 높은 주거비를 부담하기보다는 부모와 동거하면서 주거비용을 절약하는 편이 가족전체의 자원배분 측면에서 효율적이라는 점도 작용한다. 특히, 한국과 같이 가족주의 정서가 강하고 부모나 자녀모두 자녀의 결혼 전까지는 동거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환경에서는 자녀의 빠른 독립보다는 부모와 동거하면서 비용을 최소화하고 자녀의 자산형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일 수 있다.

한국에서는 전통적으로 대가족 제도가 있어왔고 최근 핵가족 제도가 보편화되었으나 미혼인 성인자녀와 부모의 동거는 일반적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져 왔다. 2000년대 이후 캥거루족

이 사회적 이슈로 부상한데는 규모가 급증하고 있고, 자녀와 부모의 동반 빈곤화를 초래할 위험성이 높으며, 청년의 독립시기가 지연될수록 부모의존 성향이 심화되어 사회진출이 곤란해질 것이라는 염려 때문이다. 청년들의 독립심 부족, 부모세대의 과잉 자녀보호 심리, 청년층 취업난이라는 사회경제적 요인, 높은 대학진학률과 고학력화, 폭등하는 주거비 부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가 썩거루족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주목하여 썩거루족 현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첫째, 청년층에서 썩거루족이 차지하는 규모를 추정한다. 성, 연령, 학력, 경제활동상태 등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을 통해 썩거루족의 원인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부모의 지불능력과 자녀의 썩거루족과의 관련성을 분석한다. 썩거루족은 성인자녀층의 취업난이나 불안정 고용 등에도 기인할 수 있으나, 부모의 지불능력이거나 수용의사에도 영향을 받는 양면성을 갖는다. 특히 자녀의 대학 학자금, 졸업후 취업준비 비용 등을 부모가 부담하는 청년층이 더 좋은 취업성과를 보일 가능성이 높고, 자녀의 안정적 사회진출을 희망하는 부모로서는 기꺼이 고통과 희생을 감내할 수 있다. 청년층의 부모의존이 보편적 현상으로 자리 잡을 경우에는 부모의 경제적 상태가 곧바로 자녀의 삶을 결정하는 사실상의 계급 사회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山田 昌弘, 1999)

셋째로, 청년층의 취업여부나 취업의 질이 썩거루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썩거루족 현상은 근본적으로 청년층 자신의 문제이며, 취업은 청년층의 자립을 위한 출발점이 된다. 따라서, 취업상태, 취업의 질을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함으로써 취업이 청년층의 자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의 사례를 보면, 정규직 전일제로 취업하기 보다는 시간제, 임시직 등으로 일하는 ‘프리터’, 은둔형 외톨이를 의미하는 ‘히키코모리’, 연애, 결혼, 자녀를 포기하고 자동차, 주택구입 등을 포기하는 이른바 달관세대* 등의 청년층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사회가 요구하는 기술, 지식, 숙련을 형성하여 사회적으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려는 적극적 의사없이 아르바이트 등으로 연명하는데 급급한 주변부 인력이 청년층의 주류문화로 자리 잡게 사회의 역동성이 떨어지고 경제의 축소균형은 불가피하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썩거루족 현상이 갖는 다양한 사회적 의미를 탐구하기 위해 그 규모를 추정하고 인구학적 특성별 현황을 파악하며, 특히 부모의 지불능력, 청년층 자신의 취업상태 등과 썩거루족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썩거루족 현상의 원인을 분석하는데 있다.

II.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에 대한 시사점

* 달관세대는 일본의 사토리세대에서 비롯된 용어로서 일본에서는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에 태어나 돈벌이는 물론 출세에도 관심 없는 젊은이들을 가리킨다.

우리나라에서는 부모에게 의존하는 성인자녀를 의미하는 용어로 썬거루족을 사용하며, 다른 나라에서도 유사한 현상을 지칭하는 용어가 있다. 일본에서는 결혼을 거부하고 부모에 얹혀사는 미혼자를 ‘기생적 독신자(parasite single)’, 미국에서는 대학 졸업 후 부모 집에 얹혀사는 미혼자를 이도 저도 아닌 중간에 낀 세대라는 의미로 트웝스터(twixter), 영국에서는 부모의 퇴직연금을 축내는 키퍼스(kippers=kids in parents’ pockets eroding retirement savings), 이탈리아에서는 어머니가 해주는 음식에 집착하는 맘모네(mammone), 독일에서는 등지에 눌러 앉아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의 네스트호커(Nesthocker), 캐나다에서는 집으로 돌아와 생활하는 자녀라는 의미로 부메랑 키즈(boomerang kids)로 부른다.

미국의 경우 Pew Research Centre의 조사에 따르면 18~34세의 39%는 부모와 동거하며, 30세 미만 대졸 청년층의 부모 동거비율은 42%에 달한다.(Parker, 2012) 영국에서는 2013년을 기준으로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층의 비율은 20~24세 49%, 20~34세 26%이며 실업상태일 경우 부모와의 동거비율이 더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2014). 영국을 대상으로 연구한 Mulder & Clark(2002)에 따르면 대학 기숙사에서 생활한 졸업생의 46%는 졸업 후 부모님 집으로 회귀했는데, Avery, Goldscheider, & Speare(1992)는 이를 ‘포근한 등지’ 가설로 설명하는데 부모의 자원이 많고 집이 편안할수록 자녀의 회귀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설명한다.

부모와의 동거여부와 더불어 중요한 것은 가족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재정적 기여를 성인자녀가 하고 있는가이다. 부모와의 동거 자체는 다양한 이유로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경제적 측면에서 자녀가 전혀 기여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특히 문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Parker(2012) 미국의 경우 25~34세의 부모와 동거하는 성인자녀의 약 절반정도는 집세를 부담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영국에 대한 Sage et al.(2013)의 연구에 따르면 대학졸업 후 부모의 집으로 회귀한 청년층의 33%는 생활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부터 미국과 영국 동거자녀의 상당수는 가구에 대한 재정적 기여없이 부모에게 얹혀사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본에서는 山田 昌弘(1999)이 ‘기생적 독신자’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여 관련연구를 시도하였고, Tran(2006)은 일본의 ‘기생적 독생자’ 규모가 1,300만명 이상에 달할 정도로 심각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청년층의 부모에 대한 높은 의존성향, 성인자녀의 나약함, 부모의 과도한 자녀보호 욕심, 청년층 취업난, 고소득 여성의 결혼기피 등을 원인으로 지목하였다. ‘기생적 독신자’가 정상적 궤도에서 이탈한 문제가 있는 청년층이라는 시각에서 벗어나, 고도성장기에 정립된 기성세대의 삶의 방식을 거부하고 변화된 새로운 사회경제적 환경에 적응하려는 청년집단이라는 긍정적 견해도 존재한다.

한국은 다른 선진국과 견주어 썬거루족 현상이 결코 미약하지 않지만 언론을 중심으로 문제제기가 이루어졌을뿐 본격적인 연구는 전체적으로 미진하였다고 평가된다. 대표적으로 이지평(2001)은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썬거루족의 규모를 추정하였는데, 2000년 현재 20~34세 청년층 중 썬거루족은 약 467만명으로 해당인구

1,287만명의 36.3%에 달하였다. 이영분 외(2011)는 부모의존 독신성인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썬거루족에 관한 본격적인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는데, 응답가구의 34%가 부모의존 독신성인 가구이며 이들의 부모는 일반가구의 부모에 비해 고연령, 저학력, 저소득 등 취약계층임을 밝혔다. 최연실(2014)은 성인자녀의 부모 동거 개념 및 현황을 소개하면서 향후 관련 연구를 위한 시각 혹은 분석틀의 탐색을 시도하였다.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서울의 30-40대 인구 중 가구주인 부모의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로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와 동거하는 인구비율은 2003년 9.4%에서 2013년 16.6%로 7.2%p 상승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본 연구에 대한 분석의 시사점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썬거루족은 성인이 된 청년의 자립이라는 정상궤도에서 이탈하여 부모에게 의존하는 비정상적인 청년층이라는 인식이 존재하지만, 고도성장기를 보낸 부모세대와 달리 저성장과 취업난에 허덕이는 청년층이 생존하기 위한 새로운 삶의 방식일 가능성이 있다. 자녀가 완전히 자립능력을 갖추기까지 부모세대가 최대한 자녀세대를 지원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일 수 있으며 부모의 경제적 여력이 충분할수록 썬거루족이 될 가능성은 더 높아질 수 있다.

둘째, 대학교육, 취업준비, 비정규직, 정규직, 자산형성 등 자녀가 자립능력을 갖추기까지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는 사회구조상 썬거루족 현상은 20대 초의 일시적 현상에서 점차 만성화, 장기화, 구조화될 가능성이 있다. 저금리, 자산가격 상승, 취업난 등 사회경제적 환경변화로 인하여 자녀가 부모의 품을 벗어나 완전히 독립하기까지 소요되는 절대기간이 증가하면서 자녀가 성인이 되더라도 자신의 능력만으로 제대로 자립하기는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썬거루족은 자녀의 생애소득을 극대화하기 위한 부모의 투자에 따른 결과로, 자녀의 사회경제적 성공을 위한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썬거루족 현상은 자녀의 부모의존 심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청년기에 겪는 어려움과 고통을 인내하고 노력을 통해 사회에 정상적으로 편입되는 힘든 경로를 포기하고 스스로 주변화되어 손쉽고 편한 삶을 추구하는 청년층이 증가하는 사회는 건강하지 못하다. 청년층의 부모의존심리가 강한 사회일수록 노력보다는 불로소득을 추구하고 계층이동성이 떨어져 경제의 축소균형과 사회의 활력이 떨어지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또한, 공정성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계층간 갈등이 심화됨으로써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수반할 수 있다.

넷째, 썬거루족의 개념정의와 관련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썬거루족은 ‘부모에게 의존하는 성인자녀’로 정의될 수 있을 것인데, 연구에 따라서 ‘성인자녀(adult children)’의 정의는 상이하다. 사전적으로 성인은 ‘다 자란 사람, 또는 다 자라서 자기 일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을 뜻하며, 법률적으로는 민법상 19세 이상의 자연인을 가리킨다. 선행연구에서는 대개 20~34세, 혹은 25~34세 등으로 상이하게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국가별로 인식하는 자녀가 독립해야 할 시기와 관련된 것으로서 일률적으로 정의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20~34세를 분석대상 연령으로 설정하였다.

다음으로 ‘부모의존’에 관한 정의이다. ‘의존’의 사전적 의미는 ‘다른 것에 의지하여 존재함’인

데, 선행연구에서 중시하는 것은 주거 및 경제적 의존이다. 본 연구에서는 주거 및 경제적 의존을 주로 다루며, 심리적, 정서적 의존은 연구범위를 벗어나므로 제외한다. 주거를 독립하였더라도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면 쉼거루족으로 보나, 주거를 함께 하더라도 생활비나 주거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쉼거루족이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한다. 경제적 의존과 더불어 중요한 것은 결혼이다. 한국에서는 결혼을 계기로 청년이 부모로부터 완전히 독립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지만, 결혼하더라도 부모에게 여전히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결혼은 쉼거루족 판단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될 수는 없다.

Ⅲ. 대졸 부모의존 성인자녀 현황

1. 실증분석 자료구성

실증분석을 위하여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이하 KLIPS)」 19차년도 학술대회용 자료를 사용하였다. KLIPS는 1998년 1차 조사가 이루어진 이후 1년에 1회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패널조사로서 노동시장과 관련된 다양한 항목에 대해 가구 및 개인단위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정기조사에 덧붙여 이루어지는 부정기적인 부가조사를 통해 특정이슈나 분야에 대한 심층적인 문항들을 추가적으로 설문하고 있으며, 19차 조사에서는 만 15~34세 청년층을 대상으로 취업과 NEET 및 주관적 인식 등을 조사하였다.(한국노동연구원, 2017)

분석을 위하여 KLIPS 19차 조사의 가구조사, 개인조사, 부가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쉼거루족에 대한 조작적 개념정의를 위하여 부모와의 동거 여부*, 경제적 독립 여부** 문항을 활용하였다. 성인자녀가 결혼하더라도 부모에게 여전히 의존할 수 있으므로 쉼거루족의 판단기준이 될 수 없다고 보았고, 재학생도 부모에게 거주나 경제적으로 의존을 하는 경우에는 쉼거루족에 포함하였다. 일정연령 이상의 성인이라면 마땅히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쉼거루족을 다음과 같이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 부모와 동거하면서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경우는 명확히 쉼거루족에 속하며(쉼거루족 I형), 주거는 독립하였으나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경우도 쉼거루족(쉼거루족 III형)에 해당한다. 부모와 동거하면서 경제적으로 독립한 경우가 애매할 수 있는데, 2016년 기준 최저임금*** 이하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독립하였다고 응답했더라도 쉼거루족에 해당하는 것

* 부가조사 설문문항 “문50) ___님께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까?”에 대해 “(1) 예”, “(2) 아니오”, “(3) 돌아가셨음” 중에서 응답하도록 하고 있다.

** 부가조사 설문문항 “문51) ___님께서 경제적으로 독립하였습니까?”에 대해 “(1) 예”, “(2) 아니오” 중에서 응답하도록 하고 있다.

*** 2016년 기준 최저임금은 시급 6,030원이고,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주 40시간 기준 1,260,270원이므로 월평균소득이 126만원을 초과하는 자로 정의하였다.

으로 보았다. 이는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 비록 경제적으로 독립했다고 응답했을지라도 최저 임금 이하의 소득자라면 부모에게 정당한 주거비용을 지불하지 못하고 주거의존도가 상당히 높을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반대로, 부모와 동거하지만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주거에 대하여 일정정도 비용을 분담할 잠재력이 있다고 보아 켄거루족에서 제외하였다. 본고에서는 켄거루족의 개념에 부합하도록 20~34세 이하 성인 청년층을 분석대상으로 삼았으며, 이하의 모든 보고는 횡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것임을 밝혀둔다.

<표1> 켄거루족 조작적 개념정의

	경제적 의존	경제적 독립	
		월평균소득 126만원이하	월평균소득 126만원 초과
주거 의존	켄거루족 I 형	켄거루족 II 형	
주거 독립	켄거루족 III 형		

<표2> 켄거루족 여부별 전체 현황

(단위 : 명, %)

	경제적 의존		경제적 독립				계	
			월평균소득 126만원이하		월평균소득 126만원 초과			
주거 의존	5,378,285	(52.8)	569,852	(5.6)	1,706,835	(16.8)	7,654,971	(75.1)
주거 독립	369,357	(3.6)	2,165,584(21.3)				2,534,941	(24.9)
계	5,747,642	(56.4)					10,189,913	(100.0)

가중치를 적용한 전체 분석대상 표본은 10,189,913명이고, 이중 켄거루족에 해당하는 청년층은 6,317,494명으로 전체 분석대상의 56.8%에 이른다. 부모와 동거하면서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켄거루족 I 형은 5,378,285명(52.8%)이었으며, 부모와 동거하면서 경제적 부담을 지지 않는 켄거루족 II 형은 569,852명(5.6%)이고, 부모로부터 주거는 독립했으나 여전히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켄거루족 III 형은 369,357명(3.6%)으로 가장 적었다. 한편 독립한 청년층은 총 3,872,419명(43.2%)인데, 이중 경제적으로는 독립하였으나 주거를 의존하는 청년층은 1,706,835명(16.8%), 주거와 경제적 독립을 모두 달성한 청년층은 2,165,584명(21.3%)으로 나타났다.

2. 청년층 켄거루족 실태

성별로 쉼겨루족 실태를 살펴보면 남자가 여자에 비해 쉼겨루족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는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로 인해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시기가 여자에 비해 늦기 때문으로 보인다.

청년층의 독립에 있어서 중요한 계기는 취업과 결혼이며, 특히 결혼은 많은 경우에 주거의 독립을 통해 청년이 실질적으로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계기가 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결혼여부에 따른 쉼겨루족 현황을 살펴보면 결혼한 경우에는 미혼에 비해 쉼겨루족 비율이 크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3> 결혼여부 및 가구별 쉼겨루족 현황

		미혼	기혼	계
남자	부모로부터 독립	1,264,417 (15.6)	806,214 (39.1)	2,070,632 (20.3)
	쉼겨루족	3,398,230 (41.8)	60,243 (2.9)	3,458,473 (33.9)
	계	4,662,648 (57.4)	866,457 (42.0)	5,529,105 (54.3)
여자	부모로부터 독립	879,716 (10.8)	922,071 (44.7)	1801787 (17.7)
	쉼겨루족	2,585,884 (31.8)	273,137 (13.2)	2,859,021 (28.1)
	계	3,465,600 (42.6)	1,195,208 (58.0)	4,660,808 (45.7)
계	부모로부터 독립	2,144,133 (26.4)	1,728,285 (83.8)	3,872,419 (38.0)
	쉼겨루족	5,984,114 (73.6)	333,380 (16.2)	6,317,494 (62.0)
	계	8,128,248 (100.0)	2,061,665 (100.0)	10,189,913 (100.0)

성인자녀의 부모의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자녀의 경제활동상태로 볼 수 있으며, 우선 청년층을 취업자, 교육훈련생, 니트족의 세 집단으로 나누어 쉼겨루족 실태를 살펴보았다. 19차 조사의 부가조사 문항 “가2) _____님께서서는 지난 1주일 동안 주로 무엇을 하였습니까?” 문항을 활용하여 세 개의 하위집단을 구분하였으며, 경제활동상태가 취업자이면 취업으로 식별한 후에 경제활동상태가 실업자 및 비경활인 경우에 대하여 (6) 정규교육기관 통학, (7) 입시학원 통학, (8) 고시학원, 직업훈련기관 등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통학, (11) 취업준비(통학 제외), (12) 진학준비(통학 제외)로 응답한 경우는 교육훈련으로, 나머지*는 니트족으로 구분하였다. 사실 OECD(2017)에 따르면 니트족(NEET)은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의 약어로서, 취업, 교육, 훈련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는 청년층

* 여기에는 (3) 구직활동, (4) 가사, (5) 육아, (9) 연로, (10) 심신장애, (13) 군 입대 대기, (14) 발령대기, (15) 결혼준비, (17) 쉬었음, (18) 기타 등이 포함된다.

을 의미하는데, 교육은 비형식 교육(non-formal education)을 제외한 전일제, 혹은 시간제 교육을 모두 포함하므로 엄밀한 의미에서는 (7), (11), (12)로 응답한 청년층은 OECD 기준에 따르면 니트족에 속한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청년층의 취업준비, 입시준비가 광범위하게 행해지는 한국적 현실을 고려하여 이들을 니트족에서 제외하고 분석한다.

각 집단의 쉐거루족 비율을 살펴보면, 취업자 38.2%, 교육훈련생 99.1%, 니트족 74.2% 등으로서 취업자의 쉐거루족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다. 동일한 취업자라 하더라도 쉐거루족 비율은 성별로 상이하게 나타나 남자는 36.9%, 여자는 40.0%로 여자가 다소 높으며, 교육훈련생은 양자가 유사하고, 니트족은 남자 90.2%, 여자 62.6%로 여자가 훨씬 낮다. 취업자 중 여자의 경우 쉐거루족 비율이 남자에 비해 높은 이유는 성별임금격차와 같이 여자의 취업의 질이 남자에 비해 낮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니트족의 쉐거루족 비율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낮게 나타난 이유는 여자 니트족의 경우 전업주부 등이 포함되므로 비록 통계상 니트족으로 분류되지만, 주거면에서 독립하고 남편의 수입이 있어 경제적으로도 독립한 주부가 상당수 존재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표4> 경제활동상태별 쉐거루족 실태

		쉐거루족아님	쉐거루족	계
남자	취업자	1,988,504 (63.1)	1,162,943 (36.9)	3,151,447 (100.0)
	교육훈련생	6,775 (0.4)	1,603,706 (99.6)	1,610,481 (100.0)
	니트족	75,353 (9.8)	691,824 (90.2)	767,177 (100.0)
	계	2,070,632 (37.4)	3,458,473 (62.6)	5,529,105 (100.0)
여자	취업자	1,386,915 (60.0)	925,464 (40.0)	2,312,379 (100.0)
	교육훈련생	20,014 (1.5)	1,271,954 (98.5)	1,291,968 (100.0)
	니트족	394,858 (37.4)	661,603 (62.6)	1,056,461 (100.0)
	계	1,801,787 (38.7)	2,859,021 (61.3)	4,660,808 (100.0)
계	취업자	3,375,419 (61.8)	2,088,407 (38.2)	5,463,826 (100.0)
	교육훈련생	26,789 (0.9)	2,875,660 (99.1)	2,902,449 (100.0)
	니트족	470,211 (25.8)	1,353,427 (74.2)	1,823,638 (100.0)
	계	3,872,419 (38.0)	6,317,494 (62.0)	10,189,913 (100.0)

연령별 쉐거루족 실태를 살펴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쉐거루족 비율은 현격하게 감소한다. 연령구간별 쉐거루족 실태를 보면, 20~24세 90.3%, 25~29세 64.2%, 30~34세 30.6% 등이다. 남자의 경우 연령이 높아지면서 고용률이 높아져 취업자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여자의 경우에는 취업자 및 기혼자 비율이 상승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5> 연령별 쉐거루족 싯태

		켐거루족 아님		켐거루족		계	
남자	20~24세	141,248	(8.1)	1,599,696	(91.9)	1,740,944	(100.0)
	25~29세	555,384	(29.4)	1,332,745	(70.6)	1,888,129	(100.0)
	30~34세	1,374,000	(72.3)	526,032	(27.7)	1,900,032	(100.0)
	계	2,070,632	(37.4)	3,458,473	(62.6)	5,529,105	(100.0)
여자	20~24세	196,929	(11.2)	1,561,038	(88.8)	1,757,967	(100.0)
	25~29세	625,312	(44.3)	785,148	(55.7)	1,410,460	(100.0)
	30~34세	979,546	(65.6)	512,834	(34.4)	1,492,380	(100.0)
	계	1,801,787	(38.7)	2,859,021	(61.3)	4,660,808	(100.0)
계	20~24세	338,177	(9.7)	3,160,734	(90.3)	3,498,911	(100.0)
	25~29세	1,180,696	(35.8)	2,117,893	(64.2)	3,298,589	(100.0)
	30~34세	2,353,546	(69.4)	1,038,867	(30.6)	3,392,412	(100.0)
	계	3,872,419	(38.0)	6,317,494	(62.0)	10,189,913	(100.0)

학력별 쉐거루족 싯태를 살펴보면, 전문대졸이 47.3%로 가장 낮고, 4년제대졸 이상 47.7%, 순수고졸 54.9% 등이다. 4년제 대졸이상에는 대학원 재학생이 포함되기 때문에 쉐거루족 비율이 다소 높아졌을 것이며, 전문대졸은 순수고졸에 비해 약 8%p 쉐거루족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표6> 학력별 쉐거루족 싯태

		켐거루족 아님		켐거루족		계	
남자	고재이하	48,247	(46.4)	55,770	(53.6)	104,017	(100.0)
	순수고졸	554,653	(47.2)	621,487	(52.8)	1,176,140	(100.0)
	대재휴학	103,042	(6.0)	1,618,674	(94.0)	1,721,716	(100.0)
	전문대졸	459,525	(53.8)	394,642	(46.2)	854,167	(100.0)
	4년제 대졸이상	905,165	(54.1)	767,900	(45.9)	1,673,065	(100.0)
	계	2,070,632	(37.4)	3,458,473	(62.6)	5,529,105	(100.0)
여자	고재이하	17,259	(37.9)	28,238	(62.1)	45,497	(100.0)
	순수고졸	311,685	(41.8)	433,796	(58.2)	745,481	(100.0)
	대재휴학	20,942	(2.0)	1,006,173	(98.0)	1,027,115	(100.0)
	전문대졸	584,663	(51.9)	542,591	(48.1)	1,127,254	(100.0)
	4년제 대졸이상	867,239	(50.6)	848,223	(49.4)	1,715,461	(100.0)
	계	1,801,787	(38.7)	2,859,021	(61.3)	4,660,808	(100.0)
계	고재이하	65,506	(43.8)	84,007	(56.2)	149,513	(100.0)
	순수고졸	866,338	(45.1)	1,055,284	(54.9)	1,921,622	(100.0)
	대재휴학	123,983	(4.5)	2,624,847	(95.5)	2,748,831	(100.0)
	전문대졸	1,044,188	(52.7)	937,233	(47.3)	1,981,421	(100.0)
	4년제 대졸이상	1,772,403	(52.3)	1,616,123	(47.7)	3,388,526	(100.0)
	계	3,872,419	(38.0)	6,317,494	(62.0)	10,189,913	(100.0)

지역별 쉼겨루족 실태를 보면 수도권 61.2%, 광역시 66.5%, 기타지역 60.1% 등으로 나타나며, 광역시가 높은 이유는 도시지역일수록 전문대, 4년제대학, 대학원 등 재학생이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7> 지역별 쉼겨루족 실태

		부모로부터 독립	쉼겨루족	계
남자	수도권	1,048,674 (36.8)	1,801,549 (63.2)	2,850,223 (100.0)
	광역시	359,980 (31.6)	777,427 (68.4)	1,137,407 (100.0)
	기타지역	661,978 (42.9)	879,497 (57.1)	1,541,475 (100.0)
	계	2,070,632 (37.4)	3,458,473 (62.6)	5,529,105 (100.0)
여자	수도권	1,042,910 (41.0)	1,503,559 (59.0)	2,546,468 (100.0)
	광역시	319,795 (35.8)	574,453 (64.2)	894,248 (100.0)
	기타지역	439,082 (36.0)	781,009 (64.0)	1,220,092 (100.0)
	계	1,801,787 (38.7)	2,859,021 (61.3)	4,660,808 (100.0)
계	수도권	2,091,583 (38.8)	3,305,108 (61.2)	5,396,691 (100.0)
	광역시	679,775 (33.5)	1,351,880 (66.5)	2,031,655 (100.0)
	기타지역	1,101,060 (39.9)	1,660,507 (60.1)	2,761,567 (100.0)
	계	3,872,419 (38.0)	6,317,494 (62.0)	10,189,913 (100.0)

가구의 경제력은 자녀가 부모에게 의지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궁극적으로 자녀의 경제적 독립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가구의 연간근로소득, 연간금융소득, 연간부동산소득 등을 모두 합산하여 가구의 연간소득을 집계하고 이를 소득구간 계층별로 구분하여 자녀의 쉼겨루족 현황을 살펴보았다. 대체로 부모소득이 증가할수록 쉼겨루족 비율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연간 가구소득 8,000만원 이상의 고소득가구에서 자녀의 쉼겨루족 비율은 80.9%로 가장 높았으며, 2000~3000만원 미만 가구가 44.4%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가구소득 2,000만원 미만 최하위 소득계층의 경우에는 자녀의 쉼겨루족 비율이 53.7%로 비교적 높은 특징을 보였다.

<표8> 연간 가구소득별 쉐거루족 현황

		부모로부터 독립	쉐거루족	계
남자	2000만원미만	400,655 (46.1)	468,185 (53.9)	868,841 (100.0)
	2000~3000만원미만	409,898 (53.3)	359,550 (46.7)	769,448 (100.0)
	3000~4000만원미만	496,346 (46.9)	562,043 (53.1)	1,058,389 (100.0)
	4000~6000만원미만	381,004 (35.3)	697,446 (64.7)	1,078,450 (100.0)
	6000~8000만원미만	233,976 (27.9)	605,312 (72.1)	839,288 (100.0)
	8000만원이상	148,754 (16.3)	765,936 (83.7)	914,690 (100.0)
	계	2,070,632 (37.4)	3,458,473 (62.6)	5,529,105 (100.0)
여자	2000만원미만	294,645 (46.6)	338,319 (53.4)	632,964 (100.0)
	2000~3000만원미만	305,480 (59.0)	211,997 (41.0)	517,477 (100.0)
	3000~4000만원미만	325,657 (45.0)	397,488 (55.0)	723,146 (100.0)
	4000~6000만원미만	412,687 (35.3)	756,604 (64.7)	1,169,291 (100.0)
	6000~8000만원미만	281,280 (35.3)	515,290 (64.7)	796,570 (100.0)
	8000만원이상	182,037 (22.2)	639,323 (77.8)	821,360 (100.0)
	계	1,801,787 (38.7)	2,859,021 (61.3)	4,660,808 (100.0)
계	2000만원미만	695,300 (46.3)	806,504 (53.7)	1,501,804 (100.0)
	2000~3000만원미만	715,378 (55.6)	571,547 (44.4)	1,286,925 (100.0)
	3000~4000만원미만	822,004 (46.1)	959,531 (53.9)	1,781,535 (100.0)
	4000~6000만원미만	793,691 (35.3)	1,454,050 (64.7)	2,247,741 (100.0)
	6000~8000만원미만	515,256 (31.5)	1,120,602 (68.5)	1,635,858 (100.0)
	8000만원이상	330,791 (19.1)	1,405,260 (80.9)	1,736,050 (100.0)
	계	3,872,419 (38.0)	6,317,494 (62.0)	10,189,913 (100.0)

부모의 경제력이 높을수록 자녀의 쉐거루족 가능성이 높은 이유를 좀 더 심층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연간가구소득과 자녀의 경제활동상태를 살펴보았다. 자녀의 경제활동상태를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취업자, 교육훈련생, 니트족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청년층의 연령이 20~24세인 경우는 소득이 높을수록 취업자 비율이 낮고, 교육훈련생 비율이 높은 특징을 보였으며, 30~34세에서는 반대로 소득이 높을수록 취업자 비율이 높고, 니트족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즉, 부자일수록 자녀의 교육훈련에 보다 오랜 기간 투자하기 때문에 20대 초반에는 교육훈련생이 많지만, 30대로 넘어가면서 부유층의 자녀들은 대부분 취업에 성공하고 니트족으로 남는 비율이 매우 제한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연간 가구소득 6,000만원 미만에서는 자녀가 30세 이상이 되더라도 20%이상 니트족으로 남아 있다.

<표9> 연간 가구소득과 자녀의 경제활동상태 현황

		취업자		교육훈련생		니트족		계	
20~ 24세	2000만원미만	223,898	(39.0)	253,501	(44.1)	96,978	(16.9)	574,377	(100.0)
	2000~3000만 원미만	95,493	(30.8)	103,631	(33.4)	110,723	(35.7)	309,847	(100.0)
	3000~4000만 원미만	127,638	(23.9)	275,236	(51.5)	131,339	(24.6)	534,213	(100.0)
	4000~6000만 원미만	208,193	(27.7)	383,365	(50.9)	161,080	(21.4)	752,638	(100.0)
	6000~8000만 원미만	159,017	(23.5)	465,536	(68.7)	52,977	(7.8)	677,530	(100.0)
	8000만원이상	133,126	(20.5)	476,188	(73.2)	40,992	(6.3)	650,306	(100.0)
	계	947,365	(27.1)	1957457	(55.9)	594,089	(17.0)	3,498,911	(100.0)
25~ 29세	2000만원미만	351,722	(60.2)	107,920	(18.5)	124,139	(21.3)	583,782	(100.0)
	2000~3000만 원미만	282,462	(66.3)	58,455	(13.7)	85,057	(20.0)	425,974	(100.0)
	3000~4000만 원미만	295,976	(62.1)	89,345	(18.8)	90,967	(19.1)	476,288	(100.0)
	4000~6000만 원미만	358,395	(53.6)	209,756	(31.3)	101,082	(15.1)	669,233	(100.0)
	6000~8000만 원미만	272,383	(64.0)	108,386	(25.5)	44,830	(10.5)	425,599	(100.0)
	8000만원이상	411,426	(57.3)	227,919	(31.8)	78,369	(10.9)	717,714	(100.0)
	계	1,972,365	(59.8)	801,782	(24.3)	524,443	(15.9)	3,298,589	(100.0)
30~ 34세	2000만원미만	224,337	(65.3)	46,137	(13.4)	73,171	(21.3)	343,646	(100.0)
	2000~3000만 원미만	406,015	(73.7)	19,938	(3.6)	125,151	(22.7)	551,103	(100.0)
	3000~4000만 원미만	580,366	(75.3)	22,781	(3.0)	167,887	(21.8)	771,034	(100.0)
	4000~6000만 원미만	597,153	(72.3)	31,542	(3.8)	197,175	(23.9)	825,870	(100.0)
	6000~8000만 원미만	400,669	(75.2)	12,576	(2.4)	119,484	(22.4)	532,729	(100.0)
	8000만원이상	335,556	(91.2)	10,236	(2.8)	22,239	(6.0)	368,031	(100.0)
	계	2,544,096	(75.0)	143,210	(4.2)	705,107	(20.8)	3,392,412	(100.0)
계	2000만원미만	799,958	(53.3)	407,558	(27.1)	294,288	(19.6)	1,501,804	(100.0)
	2000~3000만 원미만	783,970	(60.9)	182,024	(14.1)	320,931	(24.9)	1,286,925	(100.0)
	3000~4000만 원미만	1,003,981	(56.4)	387,362	(21.7)	390,193	(21.9)	1,781,535	(100.0)
	4000~6000만 원미만	1,163,741	(51.8)	624,663	(27.8)	459,337	(20.4)	2,247,741	(100.0)
	6000~8000만 원미만	832,069	(50.9)	586,498	(35.9)	217,290	(13.3)	1,635,858	(100.0)
	8000만원이상	880,107	(50.7)	714,343	(41.1)	141,600	(8.2)	1,736,050	(100.0)
	계	5,463,826	(53.6)	2,902,449	(28.5)	1,823,638	(17.9)	10,189,913	(100.0)

3. 청년층 취업자 쉼겨루족 실태

여기서는 취업의 질에 따른 쉼겨루족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분석대상을 취업자로 국한한다. 우선 직업별 쉼겨루족 현황을 살펴보면, 관리전문직의 쉼겨루족 비율은 31.1%로 가장 낮고 사무서비스판매직이 43.5%로 가장 높으며, 생산직이 34.7%로 나타났다. 취업의 질이 좋을수록 쉼겨루족으로 편입되는 비율이 줄어들게 됨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산업별 쉼겨루족 실태를 살펴보면 제조업이 31.4%임에 반해 비제조업은 38.8%로서 제조업이 여타 산업에 비해 낮은 특징을 보였다. 평균적으로 제조업 일자리의 취업의 질이 서비스업에 비해 양호하기 때문에 이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표10> 직업별 쉼겨루족 현황

		부모로부터 독립	쉼겨루족	계
남자	관리전문직	562,316 (69.3)	249,594 (30.7)	811,910 (100.0)
	사무서비스판매직	680,826 (60.1)	451,759 (39.9)	1,132,585 (100.0)
	생산직	590,474 (65.6)	309,019 (34.4)	899,493 (100.0)
	계	1,833,616 (64.5)	1,010,372 (35.5)	2,843,988 (100.0)
여자	관리전문직	683,935 (68.7)	311,830 (31.3)	995,766 (100.0)
	사무서비스판매직	573,171 (52.8)	512,345 (47.2)	1,085,516 (100.0)
	생산직	65,884 (61.9)	40,477 (38.1)	106,361 (100.0)
	계	1,322,990 (60.5)	864,652 (39.5)	2,187,642 (100.0)
계	관리전문직	1,246,251 (68.9)	561,424 (31.1)	1,807,675 (100.0)
	사무서비스판매직	1,253,997 (56.5)	964,103 (43.5)	2,218,101 (100.0)
	생산직	656,358 (65.3)	349,496 (34.7)	1,005,854 (100.0)
	계	3,156,606 (62.7)	1,875,024 (37.3)	5,031,630 (100.0)

<표11> 산업별 쉼겨루족 실태

		부모로부터 독립	쉼겨루족	계
남자	비제조업	1,259,610 (62.5)	754,472 (37.5)	2,014,082 (100.0)
	제조업	574,006 (69.2)	255,899 (30.8)	829,905 (100.0)
	계	1,833,616 (64.5)	1,010,372 (35.5)	2,843,988 (100.0)
여자	비제조업	1,177,814 (59.8)	791,661 (40.2)	1,969,475 (100.0)
	제조업	145,176 (66.5)	72,991 (33.5)	218,167 (100.0)
	계	1,322,990 (60.5)	864,652 (39.5)	2,187,642 (100.0)
계	비제조업	2,437,424 (61.2)	1,546,133 (38.8)	3,983,557 (100.0)
	제조업	719,182 (68.6)	328,890 (31.4)	1,048,073 (100.0)
	계	3,156,606 (62.7)	1,875,024 (37.3)	5,031,630 (100.0)

정규직 여부별로 쉼겨루족 현황을 살펴보면 정규직의 쉼겨루족 비율은 27.8%, 비정규직은 59.5%로 비정규직의 쉼겨루족 비율이 정규직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정규직의 임금수준이 정규직에 비해 현격하게 낮기 때문에 비정규직의 부모의존이 불가피하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표12> 정규직여부별 쉼겨루족 현황

		부모로부터 독립	쉼겨루족	계
남자	정규직	1,456,157 (75.0)	485,074 (25.0)	1,941,231 (100.0)
	비정규직	377,459 (41.8)	525,298 (58.2)	902,757 (100.0)
	계	1,833,616 (64.5)	1,010,372 (35.5)	2,843,988 (100.0)
여자	정규직	1,090,171 (68.8)	494,551 (31.2)	1,584,722 (100.0)
	비정규직	232,819 (38.6)	370,101 (61.4)	602,920 (100.0)
	계	1,322,990 (60.5)	864,652 (39.5)	2,187,642 (100.0)
계	정규직	2,546,328 (72.2)	979,625 (27.8)	3,525,953 (100.0)
	비정규직	610,278 (40.5)	895,399 (59.5)	1,505,677 (100.0)
	계	3,156,606 (62.7)	1,875,024 (37.3)	5,031,630 (100.0)

직장의 유형을 청년층이 선호하는 선망직장과 그렇지 않은 비선망직장으로 구분하여 쉼겨루족 현황을 살펴보았다. 우선 선망직장은 정규직 임금근로자 취업자 중에서 직장이 종업원 300인 이상 대기업, 공무원, 공기업, 외국계기업 등에 해당하는 경우이며, 비선망직장은 선망직장에 해당하지 않은 여타의 취업자를 모두 포함한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쉼겨루족 비율을 살펴보면, 선망직장 25.7%, 비선망직장 41.5%로 취업의 질이 낮으면 쉼겨루족 가능성이 뚜렷하게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다.

<표13> 직장유형별 쉼겨루족 현황

		부모로부터 독립	쉼겨루족	계
남자	선망직장	619,067 (78.5)	169,467 (21.5)	788,534 (100.0)
	비선망직장	1,214,549 (59.1)	840,905 (40.9)	2,055,454 (100.0)
	계	1,833,616 (64.5)	1,010,372 (35.5)	2,843,988 (100.0)
여자	선망직장	377,623 (68.4)	174,796 (31.6)	552,419 (100.0)
	비선망직장	945,367 (57.8)	689,856 (42.2)	1,635,223 (100.0)
	계	1,322,990 (60.5)	864,652 (39.5)	2,187,642 (100.0)
계	선망직장	996,690 (74.3)	344,263 (25.7)	1,340,953 (100.0)
	비선망직장	2,159,916 (58.5)	1,530,761 (41.5)	3,690,677 (100.0)
	계	3,156,606 (62.7)	1,875,024 (37.3)	5,031,630 (100.0)

취업의 질과 쉼겨루족이 될 확률을 좀 더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월평균소득 자료가 있는 청년층 취업자를 대상으로 월평균소득 구간으로 계층을 구분하여 쉼겨루족 현황을 분석하였다. 이를 살펴보면 청년층 본인소득이 증가할수록 쉼겨루족 비율은 뚜렷하게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월평균소득 100만원이하의 저소득 청년 취업자의 쉼겨루족 비율은 81.9%임에 비해, 월평균소득 301만원 이상 고소득 청년 취업자의 쉼겨루족 비율은 12.0%에 그쳤다.

<표14> 청년층 월평균소득 구간별 쉼겨루족 현황

		부모로부터 독립		쉼겨루족		계	
남자	100만원이하	68,454	(21.9)	244,420	(78.1)	312,874	(100.0)
	101~150만원	156,998	(47.5)	173,583	(52.5)	330,581	(100.0)
	151~200만원	471,538	(57.8)	343,571	(42.2)	815,109	(100.0)
	201~250만원	431,669	(76.8)	130,396	(23.2)	562,065	(100.0)
	251~300만원	346,811	(83.7)	67,585	(16.3)	414,397	(100.0)
	301만원이상	358,146	(87.6)	50,816	(12.4)	408,962	(100.0)
	계	1,833,616	(64.5)	1,010,372	(35.5)	2,843,988	(100.0)
여자	100만원이하	39,665	(13.9)	245,386	(86.1)	285,051	(100.0)
	101~150만원	285,083	(60.1)	189,350	(39.9)	474,433	(100.0)
	151~200만원	451,830	(65.6)	236,867	(34.4)	688,696	(100.0)
	201~250만원	307,771	(69.7)	133,682	(30.3)	441,453	(100.0)
	251~300만원	130,132	(73.8)	46,296	(26.2)	176,427	(100.0)
	301만원이상	108,509	(89.2)	13,071	(10.8)	121,581	(100.0)
	계	1,322,990	(60.5)	864,652	(39.5)	2,187,642	(100.0)
계	100만원이하	108,119	(18.1)	489,806	(81.9)	597,925	(100.0)
	101~150만원	442,081	(54.9)	362,933	(45.1)	805,014	(100.0)
	151~200만원	923,368	(61.4)	580,438	(38.6)	1,503,806	(100.0)
	201~250만원	739,440	(73.7)	264,078	(26.3)	1,003,518	(100.0)
	251~300만원	476,943	(80.7)	113,881	(19.3)	590,824	(100.0)
	301만원이상	466,655	(88.0)	63,887	(12.0)	530,542	(100.0)
	계	3,156,606	(62.7)	1,875,024	(37.3)	5,031,630	(100.0)

부모소득과 자녀소득 간에는 일정한 상관관계가 존재하며, 고소득 가구일수록 자녀의 취업의 질이 좋고 이는 고소득 가구의 청년층이 낮은 쉼겨루족 비율을 나타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실제로 가구소득과 자녀소득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연간 가구소득이 8,000만원 이상 고소득가구일 경우 자녀소득이 301만원 이상 최고구간에 속할 확률이 21.0%로 가장 높다.

<표15> 가구소득과 자녀소득

	100만원 이하	101~150 만원	151~200 만원	201~250 만원	251~300 만원	301만원 이상	계
2000만원미만	15.3	31.6	38.4	9.6	1.8	3.3	100.0
2000~ 3000만원미만	8.5	9.9	41.7	35.6	4.3	.	100.0
3000~ 4000만원미만	10.7	13.5	14.4	22.0	32.6	6.7	100.0
4000~ 6000만원미만	10.5	19.5	31.7	13.7	5.3	19.3	100.0
6000~ 8000만원미만	18.2	12.5	25.0	22.2	12.2	9.9	100.0
8000만원이상	8.7	8.2	31.2	19.0	11.9	21.0	100.0
계	11.9	16.0	29.9	19.9	11.7	10.5	100.0

IV. 회귀분석

1. 쉐거루족 확률분석

이상의 선행연구 검토와 기술적 분석(descriptive analysis)를 토대로 쉐거루족 현상을 심층 분석하기 위한 연구모형을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즉, 쉐거루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크게 청년자신, 부모, 취업현황의 세 가지를 추출하고 각각에 대해 분석자료에서 이용가능한 변수를 식별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청년자신과 관련된 변수는 성, 연령, 학력, 현재상태 등이고, 부모와 관련된 변수는 거주지역, 부모소득계층 등이며, 취업현황은 직업, 산업, 선망직장, 월평균소득 등이다. 분석에 사용한 변수들의 주요 특징은 앞서 기술통계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으므로 자세한 논의는 생략하고 태도, 의식과 관련된 문항을 살펴본다. 우선 청년층의 주관적 인식에 관한 설문은 청년활력지수, 한국사회에 대한 인식지수, 자존감, 사회적지지 등의 4가지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선 청년활력지수는 총 5개 문항이며 인간관계, 연애 및 결혼, 일자리, 내집 마련, 출산 및 육아 등의 문항에 대한 자신감을 5점 척도로 측정하며, 본 논문에서는 총 25점 만점으로 집계변수를 사용한다. 다음으로 한국사회에 대한 청년층의 인식은 공정성, 연대·협동지수(, 세대연대지수, 청년세대 자존감지수 등의 하위영역으로 구분하여 총 8개 문항을 5점 척도로 측정하며, 본 논문에서는 총 40점 만점으로 집계변수를 사용한다. 자존감은 총 11개 문항으로 측정하고 있으며, 자신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서술에 대한 동의 정도를 5점 척도로 측정하며, 본 논문에서는 총 55점 만점으로 집계변수를 사용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지지는 총 11개 문항으로 구성되며 주어진 문장에 대한 동의정도 5점 척도로 측정되며, 본 논문에서는 총 55점 만점으로 집계변수를 사용한다.

전체적으로 쉐거루족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자신과 한국사회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경제활력지수에서 두드러진다. 회귀분석을 통해 좀 더 심층적인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쉐거루족이 갖는 인식의 차이를 살펴본다.

<표16> 요약통계

변수명	캥거루족			캥거루족아님		
	관찰수	평균	S.D	관찰수	평균	S.D
성더미(여자=1, 남자=0)	1336	0.4940	0.5002	1,035	0.5217	0.4998
연령더미(20~24세=1, 기타=0)	1336	0.4648	0.4989	1,035	0.0734	0.2610
연령더미(25~29세=1, 기타=0)	1336	0.3391	0.4736	1,035	0.2686	0.4434
연령더미(30~34세=1, 기타=0)	1336	0.1961	0.3972	1,035	0.6580	0.4746
결혼더미(기혼=1, 미혼=0)	1336	0.0838	0.2772	1,035	0.5749	0.4946
학력더미(고졸=1, 기타=0)	1336	0.1999	0.4000	1,035	0.2551	0.4361
학력더미(대학재학생=1, 기타=0)	1336	0.3862	0.4871	1,035	0.0271	0.1623
학력더미(전문대졸=1, 기타=0)	1336	0.1587	0.3655	1,035	0.2995	0.4583
학력더미(대졸이상=1, 기타=0)	1336	0.2552	0.4362	1,035	0.4184	0.4935
지역더미(수도권=1, 기타=0)	1336	0.4985	0.5002	1,035	0.4792	0.4998
지역더미(광역시=1, 기타=0)	1336	0.2373	0.4256	1,035	0.2048	0.4038
지역더미(시도=1, 기타=0)	1336	0.2642	0.4411	1,035	0.3159	0.4651
경제활동상태더미(취업자=1,기타=0)	1336	0.3585	0.4797	1,035	0.8329	0.3733
경제활동상태더미(실업자=1,기타=0)	1336	0.0584	0.2346	1,035	0.0097	0.0979
경제활동상태더미(비경활=1,기타=0)	1336	0.5831	0.4932	1,035	0.1575	0.3644
본인소득더미(100만원이하=1,기타=0)	1336	0.7448	0.4362	1,035	0.1971	0.3980
본인소득더미(101~150만원이하=1,기타=0)	1336	0.0726	0.2596	1,035	0.1014	0.3021
본인소득더미(151~200만원이하=1,기타=0)	1336	0.1025	0.3035	1,035	0.2261	0.4185
본인소득더미(201~250만원이하=1,기타=0)	1336	0.0442	0.2055	1,035	0.1932	0.3950
본인소득더미(251~300만원이하=1,기타=0)	1336	0.0210	0.1433	1,035	0.1333	0.3401
본인소득더미(301만원이상=1,기타=0)	1336	0.0149	0.1214	1,035	0.1487	0.3560
현재상태더미(취업자=1,기타=0)	1336	0.3585	0.4797	1,035	0.8329	0.3733
현재상태더미(교육훈련생=1,기타=0)	1336	0.4102	0.4921	1,035	0.0058	0.0760
현재상태더미(니트족=1,기타=0)	1336	0.2313	0.4218	1,035	0.1614	0.3680
가구소득더미(2000만원미만=1,기타=0)	1336	0.1220	0.3274	1,035	0.1430	0.3502
가구소득더미(2000~3000만원미만=1,기타=0)	1336	0.0906	0.2871	1,035	0.1778	0.3825
가구소득더미(3000~4000만원미만=1,기타=0)	1336	0.1549	0.3620	1,035	0.2155	0.4113
가구소득더미(4000~6000만원미만=1,기타=0)	1336	0.2433	0.4292	1,035	0.2435	0.4294
가구소득더미(6000~8000만원미만=1,기타=0)	1336	0.1781	0.3828	1,035	0.1343	0.3411
가구소득더미(8000만원이상=1,기타=0)	1336	0.2111	0.4082	1,035	0.0860	0.2805
경제활력지수(25점)	1334	15.892	3.5115	1,035	17.531	3.3404
한국사회에 대한 인식지수(40점)	1332	23.884	4.8676	1,034	24.863	4.9047
자존감지수(55점)	1336	37.187	5.6500	1,035	38.628	5.4143
사회적지지지수(55점)	1336	39.616	5.2440	1,035	40.383	5.1176

로짓모형 추정식의 계수가 갖는 직관적 의미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해석의 편의를 위하여 독립변수가 1단위 변했을 때의 한계효과(marginal effects)를 계산하여 표로 제시하였다.

주요한 추정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취업자와 미취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캥거루족이 될 확률에 관한 로짓분석 결과에 따르면 성별로는 유의한 격차가 확인되지 않았다. 연령별로는 20~24세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연령의 증가에 따라 캥거루족이 될 확률은 유의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혼자의 경우 미혼자에 비해 캥거루족이 될 확률이 낮

았다. 이는 결혼자체의 효과라기보다는 청년층의 쉐거루족 확률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취업여부, 취업의 질 등이 모두 결혼더미 변수로 혼재된 영향으로 보인다. 학력별로는 4년 제대졸이상을 기준변수로 했을 때 고졸, 대학재학생 모두 쉐거루족이 될 확률이 높았으나, 전문대졸의 경우에는 유의하게 낮았다. 경제활동상태의 경우 취업자를 기준으로 실업자, 비경활모두 쉐거루족 확률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쉐거루족이 될 확률에는 부모의 영향이 큰데, 가구의 소득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면 연간 가구소득 8,000만원 이상 고소득층을 기준으로 소득이 낮을수록 자녀의 쉐거루족 확률이 유의하게 낮아지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부모의 경제력이 있을수록 자녀의 의존성향이 강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이며, 가족주의가 강한 아시아적 가치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표17> 쉐거루족에 관한 로짓분석(취업, 비취업 모두 포함)

	b	z	P>z	%
성더미(여자=1, 남자=0)	-0.039	-0.285	0.776	-3.9
연령더미(25~29세=1, 기타=0)	-0.632	-3.322	0.001	-46.9
연령더미(30~34세=1, 기타=0)	-1.164	-5.798	0.000	-68.8
결혼더미(기혼=1, 미혼=0)	-3.129	-15.182	0.000	-95.6
학력더미(고졸=1, 기타=0)	0.285	1.787	0.074	33.0
학력더미(대학재학생=1, 기타=0)	1.141	4.150	0.000	213.1
학력더미(전문대졸=1, 기타=0)	-0.282	-1.831	0.067	-24.5
지역더미(광역시=1, 기타=0)	0.220	1.427	0.154	24.6
지역더미(시도=1, 기타=0)	-0.005	-0.035	0.972	-0.5
경제활동상태더미(실업자=1,기타=0)	2.657	6.531	0.000	1324.9
경제활동상태더미(비경활=1,기타=0)	3.058	15.622	0.000	2027.6
가구소득더미(2000만원미만=1,기타=0)	-1.995	-8.325	0.000	-86.4
가구소득더미(2000~3000만원미만=1,기타=0)	-1.917	-8.016	0.000	-85.3
가구소득더미(3000~4000만원미만=1,기타=0)	-1.076	-4.885	0.000	-65.9
가구소득더미(4000~6000만원미만=1,기타=0)	-0.633	-2.964	0.003	-46.9
가구소득더미(6000~8000만원미만=1,기타=0)	-0.356	-1.529	0.126	-30.0

다음으로 취업자만을 대상으로 쉐거루족이 될 확률에 관한 로짓분석 결과를 살펴본다.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지역의 경우 수도권을 기준으로 광역시, 시도의 경우 쉐거루족 확률이 유의하게 높았는데, 이는 양질의 취업처가 주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취업자의 경우에도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자녀의 쉐거루족 확률은 뚜렷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본인의 취업과 관련된 변수를 살펴보면 직종변수는 관리전문직을 기준으로 했을 때 사무서비스판매직의 경우 썬거루족 확률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산업더미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비정규직의 경우 정규직에 비해 썬거루족 확률이 유의하게 높았고, 선망직장 여부는 유의한 효과를 미치지 못하였다. 본인소득의 경우는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으며, 소득이 낮을수록 뚜렷하게 썬거루족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망직장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아마도 본인소득의 효과로 선망직장의 효과가 반영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18> 썬거루족에 관한 로짓분석(비취업은 제외하고 취업만 포함)

kang	b	z	P>z	%
성더미(여자=1, 남자=0)	-0.194	-0.992	0.321	-17.6
연령더미(25~29세=1, 기타=0)	-0.396	-1.596	0.111	-32.7
연령더미(30~34세=1, 기타=0)	-0.715	-2.621	0.009	-51.1
결혼더미(기혼=1, 미혼=0)	-2.985	-9.952	0.000	-94.9
학력더미(고졸=1, 기타=0)	-0.406	-1.660	0.097	-33.3
학력더미(대학재학생=1, 기타=0)	-0.239	-0.609	0.542	-21.2
학력더미(전문대졸=1, 기타=0)	-0.454	-2.135	0.033	-36.5
지역더미(광역시=1, 기타=0)	0.861	4.088	0.000	136.6
지역더미(시도=1, 기타=0)	0.424	2.020	0.043	52.7
가구소득더미(2000만원미만=1,기타=0)	-3.600	-10.251	0.000	-97.3
가구소득더미(2000~3000만원미만=1,기타=0)	-2.676	-8.347	0.000	-93.1
가구소득더미(3000~4000만원미만=1,기타=0)	-1.487	-5.159	0.000	-77.4
가구소득더미(4000~6000만원미만=1,기타=0)	-0.839	-3.105	0.002	-56.8
가구소득더미(6000~8000만원미만=1,기타=0)	-0.501	-1.770	0.077	-39.4
직종더미(사무서비스판매직=1,기타=0)	0.354	1.778	0.075	42.5
직종더미(생산직=1,기타=0)	0.087	0.306	0.759	9.1
산업더미(제조업=1,비제조업=0)	0.231	0.984	0.325	26.0
정규직더미(비정규직=1,정규직=0)	0.791	3.796	0.000	120.7
선망직장더미(비선망직장=1,선망직장=0)	0.300	1.476	0.140	35.0
본인소득더미(100만원이하=1,기타=0)	3.823	8.102	0.000	4475.2
본인소득더미(101~150만원이하=1,기타=0)	2.123	5.261	0.000	735.4
본인소득더미(151~200만원이하=1,기타=0)	1.391	3.887	0.000	301.9
본인소득더미(201~250만원이하=1,기타=0)	0.949	2.562	0.010	158.3
본인소득더미(251~300만원이하=1,기타=0)	0.466	1.163	0.245	59.4

2. 청년층의 인식과 쉐거루족

쉐거루족은 정상적으로 사회에 편입되지 못하고 주변화하여 자립하지 못한 집단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청년층의 의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경제활력, 한국사회에 대한 인식, 자존감, 사회적지지 등의 영역에서 쉐거루족이 어떤 의식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총 4개의 회귀식을 추정하였다. 설명변수는 모든 모형이 동일하고 종속변수는 경제활력지수(REG1), 한국사회에 대한 인식지수(REG2), 자존감지수(REG3), 사회적지지지수(REG4) 등 각각에 대하여 로그를 취한 점에서 구분된다. 따라서, 추정계수는 설명변수가 모두 더미변수이므로 0에서 1로 변화할 때의 변화율을 의미하게 된다.

우선 경제활력지수의 로그값을 종속변수로 모형을 추정한 REG1의 결과를 보면 모형의 설명력은 전체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쉐거루족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다른 요인을 통제한 후에 경제활력지수가 11.8% 낮았다. 경제활력지수는 20~24세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연령이 높아질수록 부적 효과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혼은 정의 효과를 가졌다. 학력은 4년제 대졸 이상을 기준으로 대학재학생만 경제활력지수가 높을뿐 다른 집단은 부적 효과가 더 컸는데, 재학생은 미래에 대해 낙관적 생각을 갖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가구소득의 영향이 크게 나타났는데, 소득이 낮을수록 부적 영향이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다. 다음으로 한국사회에 대한 인식지수의 로그값을 종속변수로 모형을 추정한 REG2, 자존감지수의 로그값을 종속변수로 모형을 추정한 REG3을 보면, 쉐거루족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다른 요인을 통제한 후에 각각 9.2%, 9.7% 낮았다. 마지막으로 사회적지지지수의 로그값을 종속변수로 모형을 추정한 REG4를 보면, 쉐거루족 여부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타의 변수들은 REG1과 유사한 패턴을 보이므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표19> 청년층의 인식 회귀분석(전체)

	REG1	REG2	REG3	REG4
캥거루족 더미(캥거루=1,아님=0)	-0.118***	-0.092**	-0.097***	-0.016
성더미(여자=1, 남자=0)	0.004	-0.013	-0.045*	0.019
연령더미(25~29세=1, 기타=0)	-0.064*	-0.054	-0.008	-0.022
연령더미(30~34세=1, 기타=0)	-0.117***	-0.090**	-0.062	-0.020
결혼더미(기혼=1, 미혼=0)	0.296***	0.113***	0.150***	0.148***
학력더미(고졸=1, 기타=0)	-0.192***	-0.048*	-0.224***	-0.177***
학력더미(대학재학생=1, 기타=0)	0.068*	0.073*	0.028	0.047
학력더미(전문대졸=1, 기타=0)	-0.054*	-0.002	-0.082***	-0.064**
지역더미(광역시=1, 기타=0)	0.179***	0.166***	-0.031	0.012
지역더미(시도=1, 기타=0)	0.127***	0.122***	-0.006	0.066**
경제활동상태더미(실업자=1,기타=0)	-0.073***	-0.100***	-0.083***	-0.042*
경제활동상태더미(비경활=1,기타=0)	-0.136***	-0.053*	-0.072**	-0.090***
가구소득더미(2000만원미만=1,기타=0)	-0.157***	-0.136***	-0.105***	-0.080**
가구소득더미(2000~3000만원미만=1,기타=0)	-0.082***	-0.126***	-0.098***	-0.080**
가구소득더미(3000~4000만원미만=1,기타=0)	-0.092***	-0.087**	-0.091***	-0.092***
가구소득더미(4000~6000만원미만=1,기타=0)	-0.068**	-0.100***	-0.040	-0.044
가구소득더미(6000~8000만원미만=1,기타=0)	-0.010	-0.079**	-0.028	-0.041
N	2,369	2,366	2,371	2,371
r2	0.211	0.084	0.104	0.070
ll	288.834	262.979	1200.160	1503.126

주 : ***-1%, **-5%, *-10% 유의수준에서 각각 유의함을 의미.

다음으로 취업자를 대상으로 추정한 결과를 살펴본다. 우선 특징적인 것은 전체를 대상으로 추정된 모형과 비교하여 대체로 캥거루족 더미변수의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고, 사회적지지수의 경우에는 오히려 캥거루족이 정의 효과를 보였다. 가구소득의 효과는 대부분 소멸하였고, 본인소득의 추정계수가 유의한 결과를 보였으며 부호의 방향은 대체로 앞의 추정모형과 유사하므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표20> 청년층의 인식 회귀분석(취업자)

	REG1	REG2	REG3	REG4
깡겨루족 더미(깡겨루=1,아님=0)	-0.054	-0.029	-0.035	0.075*
성더미(여자=1, 남자=0)	-0.002	0.027	-0.061	0.025
연령더미(25~29세=1, 기타=0)	-0.141***	-0.112**	-0.133**	-0.090*
연령더미(30~34세=1, 기타=0)	-0.238***	-0.191***	-0.225***	-0.131**
결혼더미(기혼=1, 미혼=0)	0.259***	0.082*	0.137***	0.129***
학력더미(고졸=1, 기타=0)	-0.115***	0.025	-0.192***	-0.110**
학력더미(대학재학생=1, 기타=0)	0.032	0.058	-0.018	-0.016
학력더미(전문대졸=1, 기타=0)	-0.037	0.008	-0.082**	-0.069*
지역더미(광역시=1, 기타=0)	0.214***	0.214***	-0.025	0.008
지역더미(시도=1, 기타=0)	0.172***	0.128***	0.009	0.091**
가구소득더미(2000만원미만=1,기타=0)	-0.094**	-0.028	-0.057	0.033
가구소득더미(2000~3000만원미만=1,기타=0)	-0.066	-0.065	-0.073	-0.019
가구소득더미(3000~4000만원미만=1,기타=0)	-0.042	-0.031	-0.080*	-0.010
가구소득더미(4000~6000만원미만=1,기타=0)	-0.001	-0.005	-0.009	0.043
가구소득더미(6000~8000만원미만=1,기타=0)	0.013	-0.040	-0.009	0.032
직종더미(사무서비스판매직=1,기타=0)	-0.053	-0.028	-0.013	-0.053
직종더미(생산직=1,기타=0)	-0.087*	-0.042	-0.062	-0.078*
산업더미(제조업=1,비제조업=0)	-0.034	-0.044	-0.054	-0.098**
정규직더미(비정규직=1,정규직=0)	-0.144***	-0.136***	-0.087**	-0.089**
선망직장더미(비선망직장=1,선망직장=0)	-0.042	-0.024	-0.065*	-0.060*
본인소득더미(100만원이하=1,기타=0)	-0.119**	-0.126**	-0.104*	-0.120**
본인소득더미(101~150만원이하=1,기타=0)	-0.168***	-0.195***	-0.090*	-0.155***
본인소득더미(151~200만원이하=1,기타=0)	-0.128**	-0.160**	-0.041	-0.132**
본인소득더미(201~250만원이하=1,기타=0)	-0.040	-0.122**	0.072	-0.031
본인소득더미(251~300만원이하=1,기타=0)	-0.012	-0.013	0.033	-0.033
N	1,235	1,235	1,235	1,235
r ²	0.255	0.118	0.145	0.109
ll	279.416	165.539	690.633	854.644

주 : ***-1%, **-5%, *-10% 유의수준에서 각각 유의함을 의미.

이상의 결과를 요약해 보면 깡겨루족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다른 요인을 통제된 후에 경제활력지수가 11.8% 낮고, 한국사회에 대한 인식지수 역시 약 9% 정도 낮았다. 사회적 지지수는 깡겨루족 여부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이는 청년층 노동시장이 가구의 소득계층에 좌우되는 정도가 심화될수록 노력을 경시하고 운명에 순응하는 무기력한 사회로 전락할 위험성이 높고, 타인의 성취를 인정하지 않고 계층간 갈등이 심화되어 한국사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만 강화될 우려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V. 결론 및 시사점

1. 주요결과

본 연구에서는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이하 KLIPS)」 19차년도 학술대회용 자료의 가구조사, 개인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20~34세 이하 성인 청년층을 대상으로 쉐거루족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부모의 자녀지원 여력, 청년층의 취업기회를 중심으로 쉐거루족 현상을 실증분석하였으며,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중치를 적용한 전체 분석대상 표본은 10,189,913명이고, 이중 쉐거루족에 해당하는 청년층은 6,317,494명으로 전체 분석대상의 56.8%에 이른다. 성별로는 남자가 여자에 비해 쉐거루족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로 인해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시기가 여자에 비해 늦기 때문으로 보인다.

둘째, 현재 상태별로 쉐거루족 비율을 보면, 취업자 38.2%, 교육훈련생 99.1%, 니트족 74.2% 등으로서 취업자의 쉐거루족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다. 동일한 취업자라 하더라도 쉐거루족 비율은 성별로 상이하게 나타나 남자는 36.9%, 여자는 40.0%로 여자가 다소 높으며, 교육훈련생은 양자가 유사하고, 니트족은 남자 90.2%, 여자 62.6%로 여자가 훨씬 낮다.

셋째, 연령이 높아질수록 쉐거루족 비율은 현격하게 감소한다. 연령구간별 쉐거루족 실태를 보면, 20~24세 90.3%, 25~29세 64.2%, 30~34세 30.6% 등이다. 남자의 경우 연령이 높아지면서 고용률이 높아져 취업자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여자의 경우에는 취업자 및 기혼자 비율이 상승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넷째, 연간 가구소득 8,000만원 이상의 고소득가구에서 자녀의 쉐거루족 비율은 80.9%로 가장 높았으며, 2000~3000만원 미만 가구가 44.4%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가구소득 2,000만원 미만 최하위 소득계층의 경우에는 자녀의 쉐거루족 비율이 53.7%로 비교적 높은 특징을 보였다. 부자일수록 자녀의 교육훈련에 보다 오랜 기간 투자하기 때문에 20대 초반에는 교육훈련생이 많지만, 30대로 넘어가면서 부유층의 자녀들은 대부분 취업에 성공하고 니트족으로 남는 비율이 매우 제한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

다섯째, 청년층 본인소득이 증가할수록 쉐거루족 비율은 뚜렷하게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월평균소득 100만원이하의 저소득 청년 취업자의 쉐거루족 비율은 81.9%임에 비해, 월평균소득 301만원 이상 고소득 청년 취업자의 쉐거루족 비율은 12.0%에 그쳤다.

여섯째, 쉐거루족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다른 요인을 통제된 후에 경제활력지수가 11.8% 낮고, 한국사회에 대한 인식지수 역시 약 9% 정도 낮았다. 사회적지지지수는 쉐거루족 여부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청년층의 썩거루족 현상이 광범위하게 존재하며, 특히 부모의 경제적 지원여력이 높을수록 자녀의 썩거루족화가 심화되고 청년층 자신의 취업의 질과 썩거루족 간에는 부적 관계가 존재하였다. 고소득 가구에서는 자녀에게 20대 초중반까지 충분한 지원을 하여 자녀의 취업능력을 높임으로써 30대 이후에는 썩거루족 비율이 낮아지고 취업의 질이 높아지는 특성을 보였다. 청년층의 썩거루족화는 궁극적으로 청년층 자신의 노동시장 성과, 즉 취업의 질에 크게 좌우되는데, 부모의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자녀의 취업의 질을 높이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관찰되었다. 청년층 노동시장이 가구의 소득계층에 좌우되는 정도가 심화될수록 노력을 경시하고 운명에 순응하는 무기력한 사회로 전락할 위험성이 높고, 타인의 성취를 인정하지 않고 계층간 갈등이 심화되어 한국사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만 강화될 우려도 제기되었다. 청년층 노동시장이 가구의 소득계층보다는 청년자신의 노력과 열정을 높이 평가하는 방식으로 재편되도록 만들기 위한 대학, 산업계, 정부의 대응이 요청된다.

『참고문헌』

- 이삼식 외(2016). 「가족 변화에 따른 결혼·출산 행태 변화와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SBS 뉴스(2016). 「[취재파일] 독립 못하고 안하고... '자립심' 상실한 캥거루족 사회」, 인터넷
사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857453&plink=ORI&cooper=NAVER&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검색일: 2017년 8월 31일). 기사작성일 : 2016년 10월 27일.
- 山田 昌弘(1999). 『バラサイト・シングルの時代. ちくま新書』
- Parker, K. (2012). 「*The boomerang generation*」, Washington DC: Pew Social and Demographic Trends. Retrieved from: <http://www.pewsocialtrends.org/2012/03/15/the-boomerang-generation/>
-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ONS) (2013) Full Report - “*Graduates in the UK Labour Market 2013. London: Author.*”
- Mulder, C. & Clark, W. A. V. (2002). “*Leaving home for college and gaining independence. Environment and Planning A, 34, 981-999.*”
- Avery, R, Goldscheider, F. & Speare, A. (1992). “*Feathered nest/gilded cage: Parental income and leaving home in the transition to adulthood, Demography, 29(3), 375-88.*”
- Sage, J., Evandrou, M. & Falkingham, J. (2013). “*Onwards or homewards? Complex graduate migration pathways, well-being, and the ‘parental safety net’. Population, Space and Place, 19, 738-755.*”
- Tran, M. (2006). “*Unable or Unwilling to Leave the Nest? An Analysis and Evaluation of Japanese Parasite Single Theories*”. Electronic Journal of Contemporary Japanese Study.
- 이지평(2001). 『기생독신자 증가 경제활력 떨어뜨린다 - 일본 기생독신자 증가의 교훈』. LG 주간경제 614호(3월 14일). pp.4-9.
- 이영분 외(2011). “한국사회의 부모의존 독신성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제31호. pp.5-30.
- 최연실(2014). “성인자녀의 부모 동거 현황 및 분석틀의 탐색”.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32권 4호. pp.75-89.
- OECD(2017), 키워드 “NEET” 홈페이지 검색
(<https://data.oecd.org/youthinac/youth-not-in-employment-education-or-training-neet.htm>, 검색일: 2017년 5월 27일)